

전북현대, 무패 끝

(10경기 연속)

K리그1 포항전서 0-3 패배
주전 수비수 김민재 부상
빡빡한 일정 등 어려움 극복 못해
내일 부리람과 AFC챔스 16강전

프로축구 K리그1(부리그)의 '1강' 전북 현대가 10경기 연속 무패에 마침표를 찍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까지 포함하면 2연패다.

전북은 1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포항 스틸러스와의 KEB하나은행 2018 K리그1 13라운드에서 0-3으로 완패했다.

2라운드 패배 이후 9승1무로 10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지만 이날은 남지 못했다. 이번 시즌 안방에서 당한 첫 패배다.

주전 수비수 김민재의 부상과 빡빡한 일정으로 인한 선수단 이원화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도 10승1무2패(승점 31)로 선두는 유지했다.

전북은 5일 전남 드래곤즈와 리그 12라운드를 치른 후 8일 부리람 유나이티드(태국)를 상대하기 위해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태국 원정 1차전을 다녀왔다.

이날 경기 후 15일에는 부리람을 상대로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갖는다. 빡빡한 일정으로 체력 부담이 커 주축 선수들을 고루 기용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부리람 원정에서 2-3으로 패해 2차전에 많은

신경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포항은 매서운 공격력을 과시하며 6경기 만에 승리를 거둬 5승3무5패(승점 18), 8위에서 5위로 뛰어올랐다.

포항은 전반 1분 김승대가 이근호의 패스를 선제골로 연결한데 이어 21분 이광혁이 추가골을 터뜨렸다.

2-0으로 앞선 포항은 전반 막판인 41분에 송승민의 중거리슛으로 한 골을 더 얻어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전북 수비수의 몸에 맞아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었다.

FC서울과 강원FC는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서울은 첫 연승에 실패했지만 이을용 감독대행 체제 이후 1승2무로 꾸준히 승점을 이었다. 강원은 0-1로 패색이 짙은 후반 44분에 제리치의 극적인 동점골로 패배 위기에서 탈출했다.

제리치는 가장 먼저 10번째 골 고지여 오르며 득점 단독 선두에 올라섰다.

서울이 전반 15분 프리킥 세트피스에서 관태희의 헤딩골로 주도권을 잡았지만 후반 44분 고비를 넘지 못했다. 제리치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오른발 슛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마그노의 결승골에 힘입어 전남 드래곤즈를 1-0으로 제압했다.

7승(2무4패 승점 23)째를 거둔 제주는 선두 전북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뉴시스

우아함의 극치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O아트홀에서 열린 서울국제폴댄스챔피언십(SIPC)에서 아마추어 부문 참가자가 경연을 펼치고 있다.



'차세대 흡신' 팀 나달 연승행진 제동

남자프로테니스 투어 마드리드오픈
단식 준준결승서 2-0으로 완파

'차세대 흡신' 도미니크 팀(오스트리아·7위)이 '클레이코트 황제' 라파엘 나달(스페인·1위)의 클레이코트 연승 행진에 제동을 걸었다.

팀은 11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남자프로 테니스(ATP) 투어 '무투아 마드리드오픈'(총상금 620만860유로) 단식 준준결승에서 나달을 2-0(7-5 6-3)으로 완파했다. 클레이코트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팀이 지난 1년 동안 클레이코트에서 패배를 모르던 나달을 눌렀다.

팀은 지난해 5월 로마 마스터스 8강에서 나달을 2-0(6-4 6-3)으로 꺾은 경향이 있다.

나달은 당시 팀에게 패한 이후 클레이코트 21연승과 함께 50세트 연속 승리하며 클레이코트 황제로서 건재함을 과시 중이었다. 그러나 1년 만에 또 다시 팀에게 패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팀은 가스톤 가우디오(아르헨티나·은퇴),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12위)에 이어 나달을 상대로 클레이코트에서 3승을 거둔 3번째 선수가 됐다.

2016년부터 매년 나달을 상대로 클레이코트에서 1승씩 거두는 등 나달의 뒤를 이을 클레이코트 강자로 급부상했다. /뉴시스

'4월의 전북현대 축구, 제일 재미있었다'

프로축구연맹 K리그1 전 경기 분석 결과
경기 박진감 높아 '팬 페이스티' 팀 선정

전북 현대가 4월 한달 간 축구팬들에게 가장 재미있는 경기를 선사한 '팬 테이스티(FAN-TASTY)' 팀으로 뽑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달 KEB하나은행 K리그1 전 경기를 분석한 결과다. 전북은 페널티 에어리어(PA) 패스 성공률(52.3%), PA 내 슈팅 비율(62.5%), 크로스 횟수(37회), 공격 1/3 지역 패스 성공률(69.4%) 등 경기 박진감을 높이는 여러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전북은 또 K리그 3라운드 서울과의 경기부터 11라운드 대구와의 경기까지 9연승을 달리며 K리그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연맹은 지난 시즌부터 K리그 모든 경기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경기력 관련 지표들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매월 가장 공격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친 팀을 '팬 테이스티' 팀으로 선정한다.

한편 울산은 평균 실제 경기 시간(APT·31분 15초), 윈터치 패스 비율(32.8%)에서 1위, 공격지역 패스성공률(81.0%)에서 2위를 기록하며 전북 다음으로 '팬 테이스티' 경기력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정현, 발 부상 '1000시리즈' 이탈리아 대회 불참

정현(한국체대·21위)이 발 부상으로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총상금 487만2105유로)에 나서지 않는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1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상으로 인한 불참 선수들을 발표하며 정현의 이름을 거론했다.

지난달 '바르셀로나 오픈'에 출전하려 다가 발목 부상으로 계획을 변경했던 정현은 대회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한 달 사이 두 번이나 부상으로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정현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 오픈'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할 계획이다. 무리하게 대회 출전을 강행하기보다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기로 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